



濁流清論

제71호 2023년 2월 1일

발행인: 박 만 규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아주의 도약,

브렉시트와 TSMC에서 배우자!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 만 규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1
- 아주의 도약, 브렉시트와 TSMC에서 배우자!	
<u>특집</u>	4
- 교수 사회가 무기력해졌다면 '침묵이 금이다'는 말 때문이다.	
<u>소통과 담론</u>	6
- 제 3회 교수회 Unconference : 당신의 (보이지 않는) 천재성에 관하여	
<u>교수들의 건강칼럼</u>	12
- 간은 하나인데 신장은 왜 두개인가?	
<u>저서 소개란</u>	13
- 감염된 독서(저자 최영화)	
<u>소식</u>	14
- 125차 대의원회	
- 2023 교수회 의장/감사 건거 결과 공고	

존경하는 아주 가족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간은 그저 이어져 흐를 뿐인데 인간은 이 시간을 적절한 단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여도 2022년이었는데 지금은 2023년에 속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시간에 매듭을 지어 서로 다른 단위로 구분할까요?

대나무가 성장하는 원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높이 자라는 것은 일정 단위씩 마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서 성장하고 매듭을 지은 다음 그 마디를 발판으로 다시 새롭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대나무처럼 시간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서 되돌아보고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시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주대학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들을 되돌아보면서 잘된 일과 잘못된 일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올해 나아가야 할 바를 설정해야 우리에게 보다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요즘 대학 사회는 정말로 다양한 위기적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간 경쟁의 격화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 거시적인 위기뿐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 학생의 이탈 등 학교 내의 어려움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어떤 대학에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준비된 대학 이죠.

작년에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의 혹독한 결과를 목도하였습니다. 2016년 영국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민정책을 결정하고 경제정책을 꾸려나가려는 원대한 포부를 실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하였는데, 그 브렉시트로 인한 국가 경제의 쇠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가입국일 때 누리던 혜택이 없어져서 영국은 이제 잠재 생산력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런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2조8천210억 달러)이 파리의 시가총액(2조8천230억 달러)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마이클 손더스는 영국 경제 전체가 영구히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브렉시트 이전까지는 런던이 유럽을 대표하는 증시로 기능했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일자리와 자산이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이제 유럽의 작고 평범한 나라로 퇴조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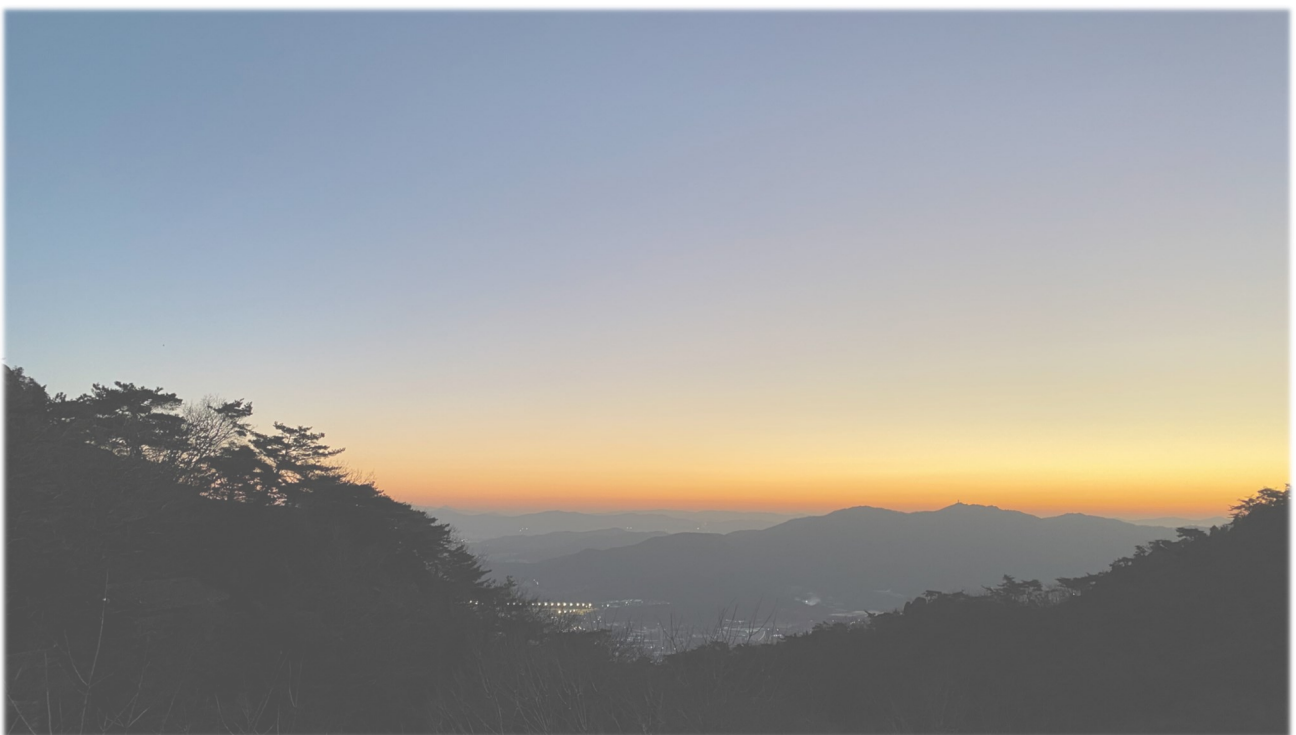
유럽에서의 영국의 추락과 반대로 아시아에서는 날아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한참 처져 있었던 이 작은 섬나라가 TSMC로 전례없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우리와 달리 대만에서는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고작 부품 유통단지로 전략한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와 달리 대만은 중소기업들간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라는 우호적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경쟁만을 강조하던 우리와 달리, 대만은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어 왔던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바뀌는 환경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대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50년 전 아주대가 개교할 당시의 대학 지형도와 지금의 대학 지형도는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승패의 열쇠는 오직 바뀌는 환경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일 뿐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코로나라는 엄청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 아주대학에는 위기가 왔을 뿐 아니라 동시에 기회도 왔습니다. 이것을 단지 위기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기회로 받아들여 새로운 도약을 펼칠지는, 그러니까 영국의 길을 걸을지 대만의 길을 걸을지는 오직 재단과 학교 본부와 그리고 각 학과들에 달려 있습니다. 대만이 기업간의 협력과 정부 기관의 지원이 만드는 상호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어서 도약했듯이, 우리 아주대도 재단과 본부의 지원과 각 학과들의 상호 협조라는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해서 일약 명문대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막 밝아온 계묘년부터는 재단과 학교 본부가 학과들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를 조성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상호 우호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교 50주년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주 파이팅!



특집

교수 사회가 무기력해졌다면 ‘침묵이 금이다’ 는 말 때문이다.

심리학과 김 경 일

최근 들어 우리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 “이유 없는 무기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이로 인한 강의와 연구의 온라인화 더 나아가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들과 같이 맞물려 일어나는 일이다. 심지어, 잘 먹고 폭 쉬고 있는데도 아무 것도 하고 싶지가 않으며, 심지어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자면, 일단 번아웃과 무기력을 구분해야 한다.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일이나 공부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에너지 고갈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유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대학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상태를 굳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무기력’한 상태다. 사실, 무기력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유가 분명하면 무기력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어제 엄청나게 힘든 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면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가. 하지만, 어제 별일 없었는데 잠도 잘 잤는데 이불에서 일어나기 싫다면? 이는 에너지가 다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분명 있는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무기력은 이런 상태에 더 가깝다.

그렇다면 이런 무기력에 사람을 쉽게 빠지게 만드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상식적인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한 행동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유를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의 의미를 빼앗아 버리는 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말들은 사소해 보여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 게 이게 다냐?” 혹은 “쓸데없는 짓(생각) 하지 마라!”는 식의 말이다. 그래서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을 우울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간단하다. 개인과 조직의 무기력증을 막으려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을 비롯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의외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자아고갈(ego depletion)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Roy Baumeister) 교수에 의하면 그 이유가 바로 설명된다. 자아고갈 현상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도록 하게 만들면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데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할 심리적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자아고갈 현상이 강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 못지않게 그저 단순하게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슬픈 영화든 재미있는 영화든 어느 하나를 보여주면서 그 영화를 보는 중에 울음 혹은 웃음을 각각 참아내게 했다. 즉 감정을 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데에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소진하게 돼서 이후의 일에 충동적으로 되거나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의 행동인 것 같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더 이상의 심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동적 행동을 제어할 힘도 새로운 일을 할 힘도 모두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심리적 에너지의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사회가 무기력해졌다는 건 할 소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표현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억누르는 데에 에너지가 소모되어 이후의 전혀 무관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그 동력이 이미 소진된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웃을 때 맘껏 웃고 힘들 때 힘들다는 소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심리적 무기력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지나치게 점잖음과 엄숙을 강요하면 무관해 보이는 이후의 일에도 의욕은 상당히 떨어진다. 침묵은 금일 수도 있고 무기력을 낳는 함정일 수도 있다.

소통과

담론

제 3회 교수회 Unconference : 당신의 (보이지 않는) 천재성에 관하여



■ 취 지 : 천재성의 의미를 다시 제고하고,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지금-여기 즉,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한다.

■ 참석자 : 고정한(공과대학), 박만규(인문대학), 박상규(자연과학대학), 이문구(공과대학), 이상신(인문대학), 이숙향(약학대학), 이재호(의과대학), 이종수(자연과학대학), 정재식(인문대학)

■ 발 제 : 정재식 (영어국문학과)

■ 시 간 : 2022년 11월 15일 (화) 17:45~19:00

■ 장 소 : 율곡관 256호

[발제]

“지금-여기”의 삶을 충만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심오한 통찰로 가득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월든』(Walden)에는 다음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구절 하나가 있다. “Follow your genius closely enough, and it will not fail to show you a fresh prospect every hour.” (너의 천재성을 진실하게 따르라. 그러면 매 순간 내 눈 앞에 새로운 경관이 펼쳐질 것이다).

‘너무나 평범하고 부족한 내 안에 천재성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전형적인 망상 아닌가?’라는 의문이 먼저 우리의 의식 속에 떠오를 확률이 높다. 특정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의 속성을 지칭하는, 통속적인 의미로서 천재성 개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내 안의 혹은 당신의 천재성 운운 하는 것’은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나 과대망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통속적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소로우의 이 구절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전에 내가 인식하지 못해왔던 또 다른 나(무한성)를 움직이면서 기존의 우리 존재의 양태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렇다면 소로우의 천재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22년 우리에게 지니는 의의는 무엇일까?

이번 모임에서 우리는 소로우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된 “천재성”에 의거해서 내 안에 담겨 있는 천재성을 생각해 보고 그러한 천재성을 따르는 것, 즉 천재성을 각자 삶에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천재성에 관하여’입니다. 여기서 천재는 통속적으로 칭하는 특정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류의 개념으로 천재성을 규정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데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놀랍도록 경이로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를 배우거나 감정을 소통하는 것과 같은 거요. 유아기 때 너무나 많은 능력들을 습득합니다. 정서 소통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다만, 말로 표현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이로운 능력들을 갖고 있던 애들이 커가면서 그 능력이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그 이유는 ‘비교’입니다. 비교 논리에서 능력이 제일 뛰어나고, 경쟁했을 때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서 남들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요구받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여 특정 몇몇 가치만 우월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그 자체의 고유성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이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이걸 갖고 있어요. 그 경이로움이 어느 순간에 몇 가지 잣대로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주로 하고자 합니다.

소로우의 이 구절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내 안의 무한성, 신성함, 성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비교와 경쟁과 같은 틀에 묶여 있던 내 자신이 자유를 추구하면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소로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된 천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로우가 말하는 천재성을 따르면 무슨 능력이 생기느냐, 또 어떤 속성을 지니는 가를 암시적으로 명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로우는 아래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참고: 다음의 『월든』 인용문은 소로우가 말하는 자신의 천재성을 따라가는 이들 즉 자기-다움에 이른 이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지금-여기”의 경이와 생명력을 함축하는 시적인 구절이다.)

Men esteem truth remote, in the outskirts of the system, behind the farthest star, before Adam and after the last man. In eternity there is indeed something true and sublime. But all these times and places and occasions are now and here. God himself culminates in the

present moment, and will never be more divine in the lapse of all the ages. And we are enabled to apprehend at all what is sublime and noble only by the perpetual instilling and drenching of the reality that surround us.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진리가 우주의 외곽 어디에, 가장 멀리 있는 별 너머에, 아담의 이전에, 혹은 최후의 인간 다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영원 속에는 진실하고 고귀한 무엇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께서도 현재의 순간에 지고(至高)의 위치에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여 그 어느 시대도 지금보다 더 거룩하지는 않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실재(진실)를 계속적으로 흡입하고 그 안에 적셔짐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숭고하고 고결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현실자각타임', '현타 왔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실자각타임'이란 자기-인식의 즐거움에 이르지 못하고 불안과 포기 좌절을 전제로 한 허무의 양태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만족에 그치고 그 이후에는 불만족 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의 긍정적인 의미인 현실자각타임을 생각해보며, 현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현자의 시간이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다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운명이 제가 정의하는 현재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며, 현실자각타임은 포기와 좌절의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깨달음에 도달해야하는데 현실에서는 좌절의 벽을 느끼는 겁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더 큰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의 벽만 느끼게 되면서 좌절과 포

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과거로 퇴행합니다. 다가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로 퇴행하는거죠.

둘째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학적, 사회제도적,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특히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중점을 두고 나이 듦을 어떻게 수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생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계속 살아오거든요. 한국사회에서는 주로 돈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돈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최고의 노후 대책은 '내안의 천재성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천재성에 대한 오해를 먼저 해결하고 가려고 합니다.

천재성의 본래 사적적 정의는 Larousse 불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génie'는 '탁월한 특성을 지닌 사물들이나 개념들을 생각해내거나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타고난 정신적 재능'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재능을 지닌 개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천재(불: génie, 독: Genie, 영:genius)란 이와 같이 탁월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비범한 재능"을 의미하죠. 또, 고대 로마에서 천재는 안내자나 수호신을 의미했는데, 신·신령이 천부의 재능을 내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천재를 보통사람과는 다른 존재로서 신격화하였습니다. 천재(genius)라는 용어 역시 라틴어에서 땅을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하는 "Genius Loci"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개념으로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의 천재 개념이 근대의 천재 개념과 가깝습니다. 자연의 총아로서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능력 (모방 아닌 독창성) -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입법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천재성은 위의 대표적인 정의와는 다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천재성’이라는 용어를 쓸 때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뿌리 깊은 비교의식과 계산적 사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로 생각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신성함, 성스러움 그리고 경이로움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이데거적 근대 비판에 따르면 비교와 계산적 사유에 기반한 천재성에 대한 기존 통념에 묶여 있다면 천재나 천재성 운운하는 것은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나 정신증적 망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다 놀라운 능력 소통 능력,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계속 비교 당하다 보면 그 뛰어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예를들어 아이가 엄마하고 정서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아주 경이로운 순간이고 정말 소중한 순간인데 비교하다보면 뛰어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비교와 계산적 사유에 기반한 천재성이 계속된다면 극소수의 인간만 천재가 됩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소수 특권자가 아닌, 존재자 일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존재의 빛”의 성스러움과 경이로움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데거의 ‘시간과 존재’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에 “당신은 일찍이 사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 앞의 한 인간이든 아니면 하나의 꽃이든 아니면 한 알의 모래알이든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It is!)’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새무얼 콜리지의 질문의 의미는 ‘사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경이롭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이데거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 등으로 환산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여 우월할 때 비로소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자본주의적, 근대적인 사회에 매몰돼 있을 때는 존재 자체가 경이롭다는 얘기가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이 구절을 이해하면 굉장히 좀 경이로운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장미는 이유없이 존재한다. 그것은 피기 때문에 필 뿐이다. 장미는 그 자신에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지도 묻지 않는다.” 이 구절은 중세 신비주의 신학자인 ‘안겔로스 질레지우스’라는 사람이 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꽃이 존재하는데 이유 없이 존재하고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 자리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비교나 가치와 상관없이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다움 자체로 경이로운 것이거든요. 질레지우스는 신의 창조물로서 모든 존재 안에 신의 신성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관심사나 특정 가치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고 표상화합니다. 하이데거의 위 구절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사물이 존재할 때 그것다움을 보는 것이 아닌 어떠한 계산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 프레임 안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의 사물다움을 보지 않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로우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로우적 천재성이란 자기-다움 삶의 실재를 흡입하는 생명력, 지금-여기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내면의 우주학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말은 우리 안에 신성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의 더 큰 나와 의 만남 속에서 타자의 무한성과 조우하고, 타자와 현상학적 만남을 통해 생태학적 접속의 경이를 체험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입견이나 판단을 중지하고 존재들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심급에서 자기-다움의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자아와 영혼을 구분해봤습니다. 자아란 자기 보존의 심급으로 소유와 지배 등의 ‘힘’을 추구합니다. 내가 살아갈 현실에서 내가 타인과 경쟁을 하면 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아가 필요합니다. 자아는 소유와 지배를 통해서 내가 타인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게 하는 힘인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다른 마음의 심급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

로 자량과 공감 그리고 초월의 관계를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로우의 천재성 안에서 실재를 흡입하면서 신의 성스러움과 사랑이 현실화 되는 '지금-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불안해하고 과거 퇴행하기 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불안과 좌절로 가득한 현실자각타임에서 '지금-여기'를 충만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 즉 진짜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의견 1)

소로우의 저서 『월든』을 보면 월든 호수에 가면 물속에 전나무 하나가 넘어져 침전해있을 때 소로우가 호수에 나무를 비쳐보면서 '내가 여기 와서 고요하고 이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로우처럼 이런 고요한 시간이 있어서 소로우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발제자)

그 책을 보면 캠핑을 온 것 같은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시긴 할 겁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보다는 삶을 실험적으로 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로우가 꿈꿨던 건 삶의 풍요로움입니다. 각각 본인에게 맞는 적정함이 있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저는 현대에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의견 2)

자신다움을 발견하는 것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욕망은 무엇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 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자신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야하는 것일까요?

(발제자)

자기다움을 찾을 때 욕망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자기 욕망을 찾아서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설정해놓은 방향성과 목표에 맞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의견 3)

자기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내면에 포커스를 두는 것과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당연히 양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의견 4)

네, 저도 약간의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기다움을 찾기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기다운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이기적인 삶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내 욕망은 찾았으나 이기심에 빠지고, 타인을 불행하게 하는 삶에 빠질 우려는 없나요?

(발제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기다움을 찾는 것이 다른 사람과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로우가 말하고자 함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거나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삶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아야합니다. 자기다움에 이른다라는 것은 자신만의 신성함을 확인하고 진정한 소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자기다움을 찾는 것은 남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언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라는 단어가 self-closed일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로우에게 '자기'는 타자 혹은 세계를 전제로 한 '자기'입니다. 자기 폐쇄적으로 해석하는 '나'가 아니라 생태학적인 '나'를 의미합니다.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작용이에요. '자기'라는 개념에 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한성을 통해서 다른 세계, 타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염려하시는 것과 오히려 정반대로 굉장히 윤리적이고 심리적인(관계적인) 단어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이 '있음'이라는 것을 선물의 사건으로 봅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there is'가 독일어로는 'Es gibt Sein'입니다. 여기서 Es는 그것, gibt는 개별 명사의 3인칭, sein은 있다, 존재하다를 뜻합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이 왜 경의를 낳냐면 이것은 존재가 존재자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선물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가 주는 선물의 형태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선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린아이가 남들에 비해 잘나거나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것이 있음에, 즉 존재하는 것 자체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존재를 'Be'로 썼단 말이에요. 사실은 셰익스피어에서 가장 명 구절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Let be"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인 호레이쇼가 햄릿에게 계략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위험하지 않느냐고 얘기할 때 햄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짐 같은 것은 믿지 않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데도 특별한 섭리가 있는 법" 그러면서 마지막에 "Let be"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Be'와 맨 마지막의 'Be'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하는 햄릿에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이야기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견 5)

팝송 제목에도 'Let it Be'가 있잖아요.

(발제자)

네 맞아요. 폴 매카트니 'Let it Be'와 같은 말입니다. 셰익스피어는 be동사의 의미를 너무 잘 알던 사람입니다. Be가 단순히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경이로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햄릿이 원하지도 않은 복수의 운명에 던져져서 원치 않게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도 모르게 광기 속에 살아가는 운명이 어찌 보면 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 수많은 감정이 들겠지만, 마지막에 깨달은 감정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의견 6)

오늘의 이야기가 많은 생각과 인사이트를 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이 주제를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spiritual한 부분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들은 주제처럼 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비춰져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패배한 사람의 변명처럼 보이고, '너는 언제 철들래'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한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사회는 비물질적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 시간이 끝나고 강의실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시 경쟁과 비교의 현실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잠깐 꿈꾼 거에 지나지 않게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강의실 바깥으로 나가 우리의 사유를 현실로 돌려놓으면 아까 말한 현타가 밀려오게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오늘 교훈과 현실과의 조화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비물질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존재의 천재성에 대해 인정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간은 하나인데 신장은 왜 두 개인가?

의과대학 신장내과학교실 김 흥 수



우선 아래 글은 위 제목으로 원고를 탁류청론 편집실로부터 부탁 받고 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인 데 솔직히 이 질문은 신장내과 교수 30년 동안 제가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막 64세가 넘었는데, 질문을 받고 나니 제가 참으로 우리 몸의 장기 개수에 무심했다는 생각이 드는) 아주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과학적인(?) 질문인가 싶은, 하여간 재미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공상 과학 영화에는 외계인이 눈이 3개 이거나 머리가 두개, 손이 10개 등등 수많은 변형된 모습이 나오기는 해서 이 참에 생각해 보니 영화 제작자나 소설가들은 한번 씩은 이 질문을 상상해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장기들 중 두 개씩 있는 장기는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몸의 위에서부터 보면 눈, 귀, 폐, 팔다리, 손 그리고 신장입니다 (남자는 고환, 여자 분들은 난소도). 죄송합니다. 중요한 콧구멍을 빼먹었습니다. 그 외의 장기들 코, 입, 뇌, 간, 식도, 위, 소대장, 비장, 췌장, 쓸개, 전립선 모두 하나입니다. 단순히 중요해서 (혹은 일이 너무 많아서?) 2개가 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논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쉬 망가져서 아예 미리 2개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기능상 한 개로는 그 장기의 고유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기에 2개로 있을 수 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손과 팔다리와 같이 우리가 양 옆으로 자유 자재로 움직여야 편하게 살 수 있는 장기이거나 눈과 귀처럼 한 쪽만 쳐다보거나 한 쪽 얘기만 들을 까봐 양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장기들을 제외하면 2개씩 있는 것은 폐와 신장 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두개 장기의 특징은 의학적으로는 우선 많은 양의 어떤 것들을 접해야 일이 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장기들입니다. 폐는 하루에 엄청난 양의 공기 (한번에 600cc 흡입한다고 하면, 1분에 12번으로 가정시 하루 10,368 리터)를 접해서 공기 중의 산소를 우리 몸으로 들여 보내고 대사과정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거꾸로 내보내야 하는 장기이고, 신장은 하루 180리터의 피 (1.5리터 짜리 콜라 페트병 120개의 분량)를 여과 시킨 후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은 몸으로 재흡수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 즉, 쓰레기(결국 소변이 됨)는 내보내는 일을 해야 하는 장기들입니다. 그래서 2개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독 왜 간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비교해 달라는 제목을 주셨는지 참으로 궁금하지만 확인은 불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 봅니다. 일단 위에 말씀드린 내용에다가 과거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신장이 타 장기에 (꼭 간만이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비해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보니 (중요한 것은 여유가 있는 것이 좋겠지요, 돈처럼) 두개가 되었을 가능성도 점쳐 봅니다. 신장이 이렇듯 조금 여유가 있는 장기 이기에 만성 신장 질환 (혹은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서 신장 기능이 30% 정도 될 때 까지도 남은 신장이 일을 거의 100%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시기 전에는 증상이 없어 병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듯 여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다른 부족한 사람들 (평생 투석을 해야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말기신부전 환자들)에게 2개 중 하나를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장 공여) 2개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훌륭한 신장 공여자들 (교수님 중에도 계십니다)이 즐비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고귀한 정신과 사랑을 보면서 매일 매일 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쓰면서 그 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신장에 대한 재미있는 질문을 통해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탁류청론 편집실에 감사를 드리며 현문우답 (賢問愚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서
소개란

감염된 독서(저자 최영화, 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최영화 저 | 글항아리 | 2018



문학과 의학, 삶이 만나 부딪치며 악동하는 '원동'의 생생한 현장!
...장석재 소장가
 이 책엔 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병과 인간의 면모가 담겨 있다.
...김관익 전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
 감염병에 맞서는 고단한 싸움이 따뜻한 문장에 실려 전해진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 책은 2018년 10월에 발간되었다. 글을 쓰기는 2010년~2015년이다. 아주대 병원에서 두 달에 한번씩 내던 '아주대 의료원 소

식지'에 실렸던 글을 모은 것이다. 의료원 소

식지였기 때문에 주로 병원 직원들이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썼고 그래서 책을 소개하지만 책에 내가 전공하는 감염병이 있어서 그 병을 소개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으로 '책과 감염병'이라는 기본 틀을 잡았다. 사실 나는 책보다는 감염병에 대한 공부를 더 오래 하였다.

책과 감염병이라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책 제목을 '책장 속 말라리아', '책 속 감염병'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편집장은 '감염된 독서'가 어떠냐고 하였고 이는 고종석 선생의 '감염된 언어'를 상기시켜 죄송하기도 하였지만 이리 저리 생각을 굴려보면 독서에 감염되는 것도 괜찮아 보였다. 그래서 이름따라 이 책은 독서관련 서가에 주고 꽂힌다. 감염병에 좀 더 집중했으면 과학책 코너에 갈 수 있었을텐데 하는 마음이 있다.

이 책을 내고 몇 군데 강의를 갈 수 있었다. 질병청에

서 역학조사관 연수교육을 할 때 몇 년 정도 시간표에 들어갔다. 하루 종일 어려운 강의만 하기 어려워서 약간 숨통을 틔우는 시간으로 넣었다고 한다. 감염관련 연수강좌도 여러군데 있다. 보건직 종사자 교육도 있고, 감염관리 과정도 있다. 청중에 따라 강의에 사용하는 책은 달라진다. 가톨릭 계열 병원에 가는 경우는 신부님이 주인공인 책이 들어가야 하고, 공무원이 청중인 경우는 '성채'나 '페스트'가 들어간다. 감염병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은 나라마다 비슷한 구석이 있다.

시민 강좌는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것과 평생 교육에서 한 강의, 그리고 연단에서 한 강의를 있다. 많지는 않았는데 연달아 강의 의뢰가 오지 않는 것을 보면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 일반인보다는 의학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들을만 했을 것이다. 좀 더 쉽게, 편하게 하는 강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읽은 책과 감염병을 소개만 하다가 시간을 다 채웠던 것 같다.

'한겨레 21'에 2020년 5월부터 일 년 간 책 소개를 한 것도 감염된 독서가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었던 시기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감염내과 의사가 어떤 책을 읽으며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의미가 있었다. 일 년 동안 대략 17권의 책을 소개했는데, 누군가 내 원고를 검토하는 경험이 특별했다.

감염된 독서는 그런 책이다. 안나 까레니나, 칸디드 혹은 낙관주의, 데카메론, 위험한 관계, 이 인간이 정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압록강은 흐른다, 닥터 지바고, 제3병동, 나라없는 사람에서 어떤 감염병이 나왔더라 하는 의문이 든다면 감염된 독서를 읽어야 한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을곡관 263호

전 화: 031)219-2240

팩 스: 031)219-1608

전자우편: ajoufaculty@ajou.ac.kr

소식

교수회 소식

교수회 제 125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12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코너스톤에서 125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총 인원 27명 중 13명 참석, 11명이 위임하여 성원되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교수회 unconference 개최, 교수라이프세미나 개최, 교수회 의장단-본부 처장단 간담회 개최, 확대운영위원회의 등에 대한 보고와 교수회 장학금 신설, 확약형 연구비와 글로벌형 연구비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출범하여 2023-2024년 교수회 의장 및 감사 선거의 시작을 알렸다.

2023 교수회 의장/감사 선거 결과 공고

12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시행한 <2023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감사 선거> 결과 각각 투표가능인원 과반의 참여와 투표인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장으로 이재호 교수(의과대학), 감사로 김서용 교수(사회과학대학), 이진우 교수(공과대학)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합쳐 63.4%(투표가능인원 648명, 투표 인원 411명)였고 찬성률은 각각 의장 이재호 98.1%, 감사 김서용 97.6%, 감사 이진우 97.8%였습니다.

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2023 의장/감사 임기: 2023년 3월 1일~2025년 2월 28일)입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위원회:

김홍표, 박대찬, 박재연, 예영민, 오동석, 이규상,
이규인, 이흥재 정태선, 최영화, 호정화